

# 찌고 굽고 튀기니...맛도 식감도 빼어난 쌀요리 재탄생

벼랑 끝 전남쌀 활로 찾기...순천 전국쌀요리경연대회 가보니

### 전국서 모인 10팀 누룽지 만두·쌀무스·쌀가루 스킨 등 기발한 요리 베트남 유학생 2명 양국 융합 요리 '눈길' ... '두비두밥' 팀 대상 수상

"농도 전남의 쌀소비를 위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싶어요." 24일 순천시 용당동 효산고에서 열린 '제2회 전국쌀요리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소망이다. 이날 전남도와 전남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쌀 요리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0팀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참가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 농민들이 올해 쌀값 폭락과 더불어 유례없는 폭염에 벼멸구·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울상지고 있는 점에 대해 걱정했다.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까지 줄어드는 추세에 농민들이 쌀농사를 접으면 주식인 쌀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점에서도.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요리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입을 모았다. 찌고 굽고 튀기는 사이 평범했던 쌀은 색색의 요리들로 변했다. 1시간 30분의 조리시간 동안 누룽지로 만든 만두, 쌀로 만든 무스(거품이 가미돼 생크림 같은 질감을 보여주는 식품)를 이용한 케이크, 쌀가루로 만든 스킨 등 기발한 요리들이 탄생했다. 완성된 요리를 마주한 30명의 시식 평가단은 "쌀을 이용해 밥이나 죽을 하거나 했지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을 줄 몰랐다"며 감탄했다. 경기 시흥의 한국조리과학고 소속 참가팀인 '존잘팀'은 표고버섯의 풍미를 더한 닭죽과 쌀가루를 이용한 딸기떡 등을 선보였다. 조질팀의 고영훈(18)군은 "친구들이 빵이나 고기를 즐기지만 밥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

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젊은 세대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을 통해 쌀요리의 매력이 모두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빵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밥 대신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쌀가루를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이 전남 지역 쌀 산업의 활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흥미를 활용해 머핀을 만들어낸 '흥성대공팀' 소속 권예찬(24)씨는 "밀가루와는 다르게 차진 식감이 쌀의 매력이다. 이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요리의 목표였다"며 "쌀가루는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쌀의 나라' 베트남에서 유학생 2명은 전남 쌀과 베트남 전통요리 '넴꾸온(NEM CUON-월남쌈)'을 융합했다. 순천 청안대에서 유학 중인 평복안(여·30)씨는 "베트남에서는 쌀이 주식이고 국수나 밥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며 "한국 쌀은 베트남 쌀과는 달리 찰기가 있어 색다른 조합이 가능하다. 전남 쌀과 베트남 요리의 콜라보를 많은 사람이 즐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사위원 평가와 모니터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 수상팀은 순천 효산고 학생들로 구성된 '두비두밥' 팀이었다. 두비두밥팀은 '삼색 누룽지 만두'를 만들어냈다. 밀가루 대신 누룽지로 만두피를 대체하고, 지역 특산물인 미나리를 넣어 풍미를 살렸다. 심사위원들은 누룽지 만두가 창의적일 뿐 아니라 누구



24일 순천시 용당동 효산고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쌀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찹쌀 머핀, 흑미 떡갈비 등 쌀을 활용한 요리들을 만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나 만들기 쉽고, 상품화하기 좋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하은(여·18)씨는 "쌀은 밀보다 훨씬 고소하고 소화기 잘된다"며 "독특한 식감과 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누룽지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레시피가 전남 쌀 소비 증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지역 특산물

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회에서 수상작 레시피를 팹플릿으로 제작해 외식업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단체급식 접목 가능성도 검토한 후 공공급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리 레시피 동영상 등을 SNS에 업로드해 전남 쌀의 다양한 활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을 맡은 김찬성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교수는 "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는 이번 대회가 전남 지역 쌀의 매력을 알릴 뿐 아니라 잠재된 농가와 외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쌀 소비가 되살아나고 쌀 값이 안정돼 농민 시름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25~27일 광주여대서 전국발달장애인지원대회

제39회 전국지역발달장애인지원대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지역발달장애인지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발달장애인과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립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다. 광주 대회는 2005년 이후 19년만에 열린다. 26일 기념식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3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제23회 전국 발달장애인 자기관리주장대회'가 열려 학생 8명, 일반 25명이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는다.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이마옥씨는 "장애인보다는 그냥 사람입니다"를,

권자옥씨는 '내 운명을 사랑하자'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7회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연결고리 토론회'도 함께 열린다. 전국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연결고리' 회원들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논의한다. 한동기 광주시지역발달장애인지원협회는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인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광주지역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 공공기관 고졸 확대...3년간 4% 채용

### '우선 채용' 조례 대부분 안 지켜

광주 지역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채용한 인원 중 고졸 출신이 4% 수준에 불과해 '학벌 중시 풍토'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4일 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19곳에서 채용한 총 인원 470명 중 고졸자는 16명(4.4%)에 그쳤다. 연도별 고졸 채용인원은 2021년 총 채용인원 216명 중 5명(2.3%), 2022년 178명 중 10명(5.6%), 2023년 76명 중 6명(7.8%) 등이었다. 광주시가 조례로 정한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에 따라 고졸자를 채용한 기관은 2021년 0곳, 2022년 2곳, 2023년 2곳 뿐이었다. 광주시는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에서

'광주시가 설립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고용인원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졸자 채용인원을 환경미화직, 기술직 등 특정직군으로 묶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졸자를 특정직군 위주로 선발해 신분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시민모임 주장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고졸자가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고졸자 채용 인센티브, 기관평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력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도시개발 사업 수익 주고받은 조합관계자·건설업자 기소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조합 임원들과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정범죄

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합장 A 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

합장 취임 전후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 임원 2명은 다른 건설업자 C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b>총계</b>	<b>84</b>	<b>21</b>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